우리민족끼리

통일화보

3호 주체110(2021)년 5-6월

◎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
◎ 현대적인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 푸른 숲에 어린 애국의 마음

어머니다운 심정으로(경상탁아소에서)

통일화보

3호 주체110(2021)년 (5－6월)

절세의 위인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회의 진행 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 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간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1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11

조국의 현실

현대적인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12

재자원화실현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공장 14

수도의 살림집건설장에 더 많은 골재를 16

애국열로 들끓는 사회주의협동벌 18

쟁쟁한 실력과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20

과일향기 넘치는 인민의 봉사기지 22

끝없는 환희와 희망을 모래그림에 담아 24

사람들에게 기쁨가득, 웃음가득 안겨주는 동물조교배우들 26

푸른 숲에 어린 애국의 마음 28

전도유망한 녀자축구선수들을 키워내는 어제날의 세계녀자축구계의 《별》 30

혁신자부부운전사 32

일기로 보는 우리 집 이야기 36

독자들이 보내온 사진 사랑과 정 38

조선의 특산 － 강서약수 40

해외동포소식

애국으로 빛나는 삶 34

12

16

18

28

40

노래 《사회주의락원일세》 중에서

사회주의락원일세
예가 바로 살기 좋은 나의 고향
아 내 고향 행복의 노래소리 정다운
사람마다 화목하고 서로서로 이끌어나가네
인민들의 념원이 아름답게 꽃피네
천년을 만년을 번영할 내 나라

평양시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75(1986)년 6월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창광거리 살림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69(1980)년 12월

선물옷견본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73(1984)년 4월

만경대물놀이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74(1985)년 8월

사회주의협동벌을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75(1986)년 4월

섭조개가공품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77(1988)년 3월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78(1989)년 11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회의를 사회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주체110(2021)년 6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소집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포치된 당면한 2021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의 집행실태를 중간총화하고 강력하고 정확히 추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를 6월 상순에 소집할것을 결정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간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6월 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간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올해 하반년도 주요정책집행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실태를 부문별로 집중점검하고 이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보장과 관련하여 당면하게 제기된 문제들을 료해검토하시고 그 실행을 위한 중요한 과업들을 포치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부, 각 도당위원회 책임간부들이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영예로운 책무를 다함에 헌신분투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면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여나가는데서 제기되는 일련의 대책적문제와 관련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확대회의가 지난 6월 1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조선반도주변정세와 우리 혁명의 대내외적환경의 요구에 맞게 혁명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들이 제시되였으며 조직문제가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인민군대사업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인민군대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과업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한 방도들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며 당과 혁명사업, 국가와 인민의 리익, 사회주의건설을 보위하는 신성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군건설로선과 방침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완강히 관철해나가며 고도의 격동태세를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묘향산 의료기구

현대적인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 묘향산의료기구공장 -

조선로동당의 손길아래 현대적으로 개건된 묘향산의료기구공장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을 높이 받들고 의료기구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의료기구직장에서는 로동자들이 현대적인 설비들을 다루는데 맞게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넣어 각종 의료기구의 부속품들을 질적으로 만들어내고있다.

제관직장에서는 생산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제관품생산을 다그치고있으며 조립직장에서도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조립속도를 높이고있다.

지금 묘향산의료기구공장에서는 치과종합치료기, 이비인후과종합치료기, 진찰침대를 비롯한 여러가지 성능이 좋은 의료기구들을 생산하여 각지 병원들에 보내주고있다.

사진 박주성, 글 윤금철

의료기구직장의 생산현장

각종 의료기구들을 조립하고있는 조립직장의 로동자들

성능이 좋은 의료기구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공장에서 생산하는 의료기구들의 일부

재자원화실현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공장

- 대동강축전지공장 -

최근 대동강축전지공장에서 재자원화기술개발과 도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폐축전지를 재생리용하고있는 이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의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여 지난해 축전지생산에 필요한 주원료를 자체의 힘으로 보장할수 있는 여러 재생공정들을 더욱 완비하였으며 제품의 질도 한계단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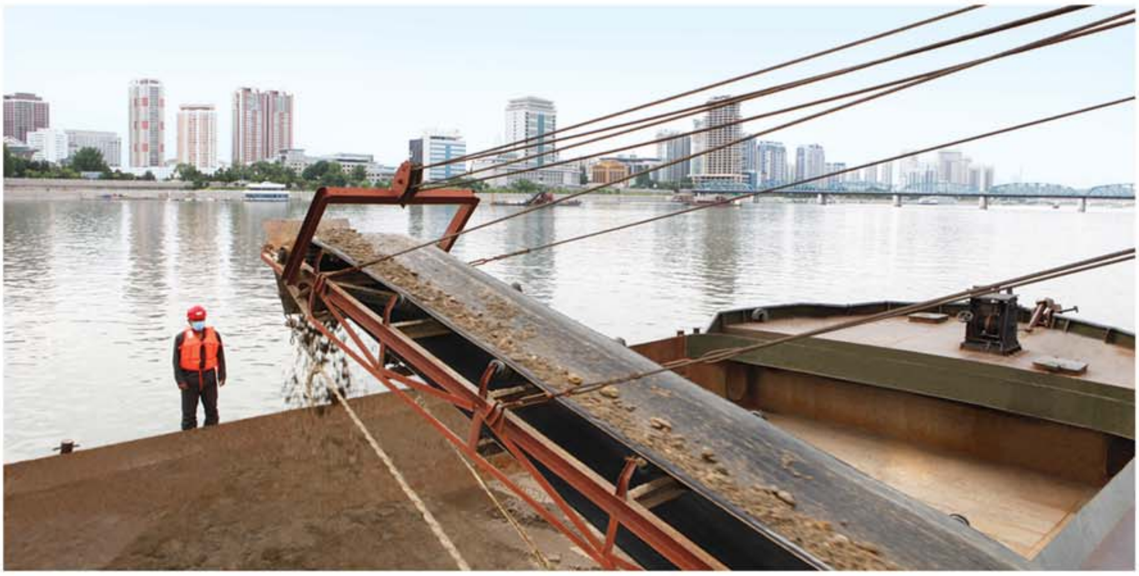
올해에 들어와서도 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서로 합심하여 폐축전지에서의 폴리에틸렌수지회수와 탄산카리에 의한 재생연생산을 비롯하여 원료, 자재의 재자원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새 기술을 연구완성하여 생산활성화를 담보할수 있게 하였다.

오늘 재자원화사업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관건적고리로 여기고 과학기술에 의거한 재자원화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이곳 로동계급의 힘찬 투쟁에 의해 생산장성과 질제고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사진 박주성, 글 윤금철

수도의 살림집건설장에 더 많은 골재를

– 평양해운사업소 –



끌배에 의해 운영되던 부선들과 준첩선들을 자체의 힘으로 자행화함으로써 기업소의 골재생산량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평양해운사업소에서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골재생산을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

사업소에서는 각종 수송을 맡아보는 바쁜 속에서도 나날이 더욱 높아지는 골재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시기 끌배에 의해 운영되던 부선들과 준첩선을 자체의 힘으로 자행화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배건조는 물론 자행화를 해본 경험도 없지만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낮과 밤이 따로없이 설비개조에 달라붙었다.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과업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곳 종업원들의 불같은 열의로 짧은 기간에 준첩선과 부선이 현대적으로 개조되여 생산량은 2배로 높아지게 되였으며 골재생산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사진 장창욱, 글 윤금철

⇑ ⇓ 기업소에서는 많은 량의 골재들을 생산하여 수도의 살림집건설장들에 보내주고있다.

애국열로 들끓는 사회주의협동벌

1

2

3

4

1 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해나가며

2 모내기를 제철에 끝내기 위해 모내는 기계의 가동률을 높여나간다.

3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여 논벼비배관리를 알심있게 해나가고있는 농장원들

4 논김매기를 질적으로 진행하고있는 농장원들

5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안고

5

쟁쟁한 실력과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 국가과학원 현대화연구소 -

국가과학원 현대화연구소는 나라의 공업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맡고있는 과학연구기지, 첨단제품생산기지이다.

연구소에서는 지난 시기 우리 식의 분산형조종설비 《미래102》와 같은 첨단기술제품들과 공업자동화프로그람도구들을 개발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십개 단위들에 대한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연구소의 20대, 30대의 젊은 과학자들은 몇해전 최신무선통신기술에 의한 생산공정의 감시조종체계를 여러 양묘장들에 도입하여 자그마한 종합조종실에서 드넓은 양묘장의 생산과 경영활동전반을 손금보듯 장악하고 조종하며 예측할수 있는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이곳 과학자들은 과학기술발전을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중핵적인 과제, 최선의 방략으로 규정한 조선로동당의 의도를 결사관철하기 위해 두뇌전, 창조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진 장창욱, 글 윤금철

류원신발공장 전력계통현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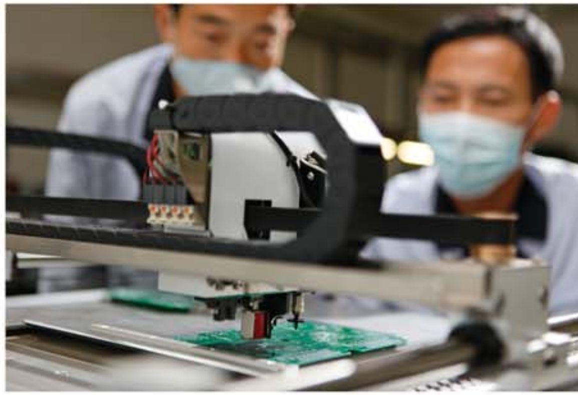
삼지연들쭉음료공장 통합생산체계

금산포젓갈가공공장 통합생산체계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여러 단위들에 도입한 현대화, 정보화성과들의 일부

자기 분야에서 패권을 쥐려는 야심을 안고 연구사업에 열중하고있는 과학자들

통합생산체계구축에 필요한 첨단공업정보기술제품들을 개발하고있는 연구사들



각종 전자요소들을 조종기판에 정확히 조립하고있는 자동요소조립기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매대마다 그득히 쌓여있고 갖가지 말린과일가공품들이 진렬대를 짝 채우고 있어 보통강상점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절로 흐뭇해진다.

매대사이를 오가며 밀차바구니에 과일들을 담는 손님들과 그들에게 제품의 맛과 특성을 알려주는 친절한 봉사원들의 얼굴마다에도 행복의 웃음, 기쁨의 미소가 떠날줄 모른다.

사진 박주성, 글 한진아

과일향기 넘치는 인민의 봉사기지

- 보통강상점 -

끝없는 환희와 희망을 모래그림에 담아

— 만수대창작사 모래그림창작실 —

1 재치있는 기교로 여러가지 그림들을 형상해내고있는 창작가들
2 합창과 모래그림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한 장면
3 창작가들의 열기띤 형상수법토론회
4 현지습작을 통하여 실력을 높여가는 창작가들

관람자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동물교예 《강아지들의 유희》

사람들에게 기쁨가득, 웃음가득 안겨주는 동물조교배우들

- 국립교예단 동물교예과 -

애완용개들에게 기교동작을 숙련시키고있는 조교배우

《곰선수》를 훈련시키고있는 조교배우

국립교예단의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흥분된 감정은 동물교예를 보면서 더욱 고조를 이룬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는 재롱스러운 원숭이와 애완용개들 그리고 곰을 비롯한 《희극배우》들이 솜씨있는 기교동작을 펼쳐놓을 때마다 관람석에서는 유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오른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재주동물들의 기교동작 하나하나에는 이곳 국립교예단 조교배우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헌신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동물들을 훈련시키는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지만 이들은 맡은 동물들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인내심을 가지고 친화훈련, 환경훈련, 복종훈련, 작품훈련과 같은 훈련단계를 거쳐 새 작품완성에 이르기까지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이들의 고심어린 노력에 의해 동물들의 재간은 나날이 늘어 사람들에게 기쁨과 랑만을 더해주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한진아

푸른 숲에 어린 애국의 마음

-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조양탄광 조림작업반 반장 김수복 -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조양탄광에는 탄광의 주변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보배산으로 가꿔가는 평범한 녀인이 있다.

그가 바로 조림작업반 반장 김수복녀성이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조림작업반 반장으로 임명된 그의 눈앞에는 잡관목만 듬성듬성 자라는 볼썽사나운 산들이 가슴아프게 안겨왔다.

당시 마흔살을 훨씬 넘긴 몸이였지만 며칠동안 험한 산발들을 오르내리며 앞으로 나무를 심어야 할 면적을 수첩에 적어가며 구체적으로 료해한 그는 어떻게 하나 탄광의 주변산들을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숲을 이루게 하리라 결심을 굳게 가다듬었다.

작업반원들의 대다수가 가정부인들이였지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작업반원들과 마음을 합쳐 양묘장을 자체의 힘으로 꾸리였고 해마다 20만여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여 산에 심었다.

조국애를 가슴속깊이 간직한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성불골, 채탄골 등 탄광의 주변산들은 점차 여러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꽉 들어찬 울창한 숲으로 변모되여갔으며 몇해전 산림담당구역을 수림화, 원림화한 조양탄광에 사회주의애국림칭호가 수여되였다.

예순살을 가까이하고있는 김수복녀성은 오늘도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준 조국의 믿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마음안고 푸른 숲에 애국의 구슬땀을 묻어가고있다.

사진 박주성. 글 장윤정

양묘장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키워내고있는 김수복반장과 작업반원들

나어린 학생소년들의 마음속에 애국의 넋을 심어주며

더더욱 푸르러갈 산천의 래일을 그리며

전도유망한 녀자축구선수들을 키워내는 어제날의 세계녀자축구계의 《별》

- 4.25체육단 녀자축구책임감독 리금숙 -

세계녀자축구계의 《별》 리금숙(2007년 11월)

사람들은 오늘도 리금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세계녀자축구계의 《별》로 조국의 영예를 떨친 녀자축구명수를 떠올리군 한다.

세계녀자축구선수권대회와 아시아녀자축구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재치있는 문전결속, 정확한 머리받기로 통쾌한 득점장면들을 펼쳐보이며 팀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기여한 리금숙.

체육인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축구에 남다른 취미와 애착을 가지고있었다.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축구의 첫걸음을 뗀 그는 4.25체육단에서 전문선수로 활약하면서 공격수로서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천성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공격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그는 이악하게 훈련하여 세계녀자축구선수권대회, 아시아녀자축구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수많은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100여개의 꼴을 넣었으며 그 과정에 아시아축구경기무대에서 3차례의 최고득점자상을 받았다.

선수생활을 마치고 녀자축구감독이 된 그는 유능한 녀자축구선수후비들을 키워내기 위해 세계적인 축구기술발전추세와 함께 자기가 터득한 경기경험과 요령들을 배합하면서 교수훈련을 과학적으로 진행하였다.

하여 그는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제8차 20살미만 세계녀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오늘도 그는 새로운 승리를 확신하며 선수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여 우리 식 축구기술과 전술체계를 완성하는 길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장윤정

선수생활기간에 참가한 국제경기의 한 장면

선수생활기간 국제경기들에서 받은 컵들의 일부

선수들과 함께 팀의 전술체계를 보다 새롭게 완성해가고있는 리금숙책임감독

선수들을 육체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해 정열을 바쳐가는 리금숙책임감독

리금숙과 그의 가정은 아들을 앞날의 축구선수로 키우기 위해 늘 관심을 돌리고있다.

혁신자부부운전사

- 락랑궤도전차사업소 운전사들인 김철남, 진춘심 -

김철남운전사가 담당한 새형의 궤도전차가 수도의 거리를 달리고있다.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 진군길에 떨쳐나선 수도시민들의 교통보장을 위해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는 락랑궤도전차사업소의 운전사들중에는 직장에서뿐아니라 손님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김철남, 진춘심부부도 있다.

자진하여 궤도전차운전사가 된 그들은 전차의 정상운행, 무사고주행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보다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오랜 운전사들과 수리공들에게서 하나하나 알심있게 배우기도 하고 필요한 기술서적들을 밤새워 탐독하기도 하면서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자신들이 맡은 궤도전차를 언제든지 정상가동할수 있게 하였다.

서로의 일욕심에 끌리여 사랑을 약속하고 가정

정상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궤도전차의 관리를 언제나 깐지게 하고있는 부부운전사

분기간 무사고주행을 보장한 자랑을 안고

을 이룬 후에도 이들은 수도시민들의 교통보장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깨끗한 마음을 안고 쉬임없이 궤도우를 달리고 또 달리였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길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찾으며 오늘도 두줄기 궤도우를 누벼가는 이들부부를 가리켜 사람들은 《혁신자부부운전사》라고 정답아 부르고있다.

사진 라춘송, 글 장윤정

⇨ 귀여운 딸과 함께 퇴근길에 나선 김철남, 진춘심부부

《…구갑세동포가 조국을 위하여 큰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애국심이 높은 동무입니다.
…앞으로 구갑세의 자손들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조국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잘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김 정 일

애국으로 빛나는 삶

– 재일동포상공인 구갑세선생 –

구갑세선생은 주체적필림공업창설과 인연을 맺고 애국의 한길을 묵묵히 걸어온 재일동포상공인이였다.

1912년 10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태여난 그는 망국노의 설음안고 떠돌이생활끝에 일본으로 건너가 갖은 민족적멸시와 학대를 받으며 유리세공공장에서 일하다가 조국해방을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과 더불어 광명을 맞이한 그가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게 된것은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해 조국에서 교육원조비를 보내준 감동깊은 사실에 접하였을 때부터였다.

나라형편이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이역땅에 살고있는 재일동포자녀들에게 사랑의 교육원조비를 보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동포애의 정은 그로 하여금 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갈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게 한 불씨로 되였다.

하기에 그는 조국에 귀국한 후 자기의 모든 재산을 평양필림공장(당시)건설에 통채로 바쳐 나라의 주체적영화제작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인생말년까지 인민경제부문의 중요직무를 맡고 나라와 인민을 위한 애국사업에 헌신하였다.

그의 소행을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을 위하여 큰일을 한 애국심이 높은 동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며 조국과 민족이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애국의 값높은 삶을 빛내인 구갑세선생은 오늘도 후대들의 기억속에 남아 영생하고있다.

글 한진아

평양필림공장(당시)에서 생산한 첫 필림에 복사된 예술영화 《금화의 비밀》

⇨ 평양필림공장(당시)건설의 나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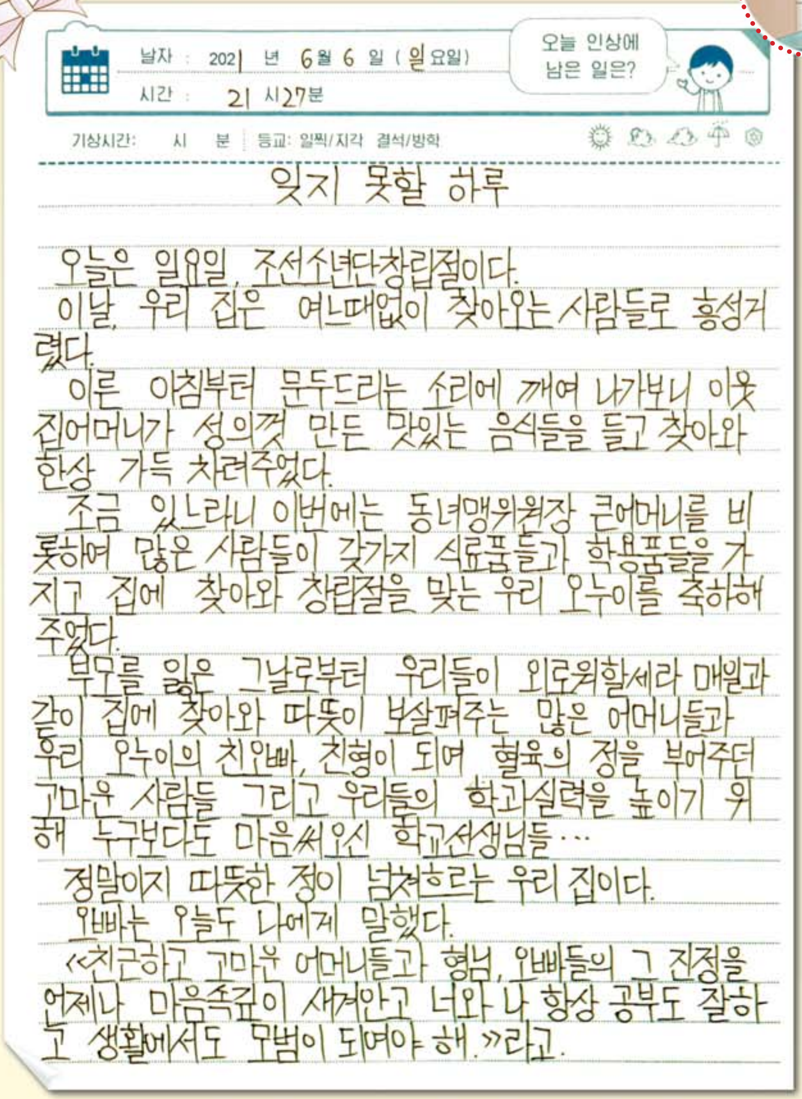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평양필림공장건설장을 찾으시고 구갑세선생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시였다. 주체57(1968)년 10월

⇨ 모란봉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구갑세선생과 일가친척들(두번째 줄 왼쪽으로부터 네번째)

⇩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선물을 받아안은 구갑세선생

일기로 보는 우리 집 이야기

- 평양시 평천구역 평천1동 49인민반 리혁일, 리영연 -



날자 : 2021 년 6월 6 일 (일 요일)
시간 : 21 시27분
오늘 인상에 남은 일은?
기상시간: 시 분 | 등교: 일찍/지각 결석/방학

잊지 못할 하루

오늘은 일요일, 조선소년단창립절이다.
이날, 우리 집은 여느때없이 찾아오는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이른 아침부터 문두드리는 소리에 깨여 나가보니 이웃집어머니가 성의껏 만든 맛있는 음식들을 들고 찾아와 한상 가득 차려주었다.
조금 있노라니 이번에는 동녀맹위원장 큰어머니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식료품들과 학용품들을 가지고 집에 찾아와 창립절을 맞는 우리 오누이를 축하해주었다.
부모를 잃은 그날로부터 우리들이 외로워할세라 매일과 같이 집에 찾아와 따뜻이 보살펴주는 많은 어머니들과 우리 오누이의 친오빠, 친형이 되여 혈육의 정을 부어주던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의 학과실력을 높이기 위해 누구보다도 마음써오신 학교선생님들…
정말이지 따뜻한 정이 넘쳐흐르는 우리 집이다.
오빠는 오늘도 나에게 말했다.
《친근하고 고마운 어머니들과 형님, 오빠들의 그 진정을 언제나 마음속깊이 새겨안고 너와 나 항상 공부도 잘하고 생활에서도 모범이 되여야 해.》라고.

평양시 평천구역 평천1동에서 살고있는 리혁일(15살), 리영연(13살)은 부모를 잃은 오누이이다. 하지만 오누이는 자기들을 고아라고 생각지 않는다.

집에 들어서면 다심한 이웃들과 동사무소의 일군들이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돌봐주고 학교에 가면 많은 선생님들이 오누이의 학과실력을 높여주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그 모습은 친부모의 모습으로 오누이의 마음속에 소중히 새겨져있다.

이렇듯 친근하고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지금 혁일이는 창덕학교에서, 영연이는 동안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에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없이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고있다.

사진 장창욱, 글 송 영

오누이가 친형, 친오빠로 따르는 장충일(왼쪽)과 김승진(오른쪽)청년들

친부모의 심정으로 오누이를 따뜻이 돌봐주고있는 이웃들과 동녀맹일군들

창덕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리혁일(앞줄 왼쪽으로부터 두번째)

동안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에서 성악가수가 될 꿈을 키워가는 리영연

운동의 쉴참에

독자들이 보내온 사진

사랑과 정

1

2

1 착한 마음

2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경기에서 우승은 못했어도…

보배동이, 효자동이되여라

조선의 특산 - 강서약수

국제기구들에서 발급한 등록증서와 검사증

예로부터 그 맛과 약효가 뛰여나 조선의 특산이라 부르는 강서약수는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리에서 솟아나는 천연탄산 광천수이다.

강서약수에는 칼시움, 나트리움, 마그네시움, 철, 규산, 염소, 류산이온들과 탄산가스를 비롯한 성분들이 들어있다.

약산성인 강서약수는 위분비정상화, 장관의 운동, 흡수촉진, 리담, 리뇨, 대사촉진, 조혈작용이 있는것으로 하여 만성위염, 위 및 십이지장궤양, 만성소대장염, 동맥경화증, 비만증, 당뇨병 등의 치료에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

세계적으로도 순수하고 깨끗한 천연음료로 인정받고있는 강서약수는 그 맛이 독특하고 약리작용 또한 높은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대단히 높다.

사진 라춘송, 글 한진아

강서약수공장의 생산현장

맛이 독특하고 건강에 좋은 약수를 누구나 즐겨 마신다.(2017년 촬영)

력사유적

련광정

평양시 대동문동에 있는 련광정은 6세기 중엽 고구려가 평양성 내성을 쌓으면서 동쪽장대(군사지휘처)로 세운 루정이다.

고려시기 평양성을 보수하면서 1111년 이 자리에 다시 루정을 세우고 이름을 《산수정》이라고 하였다. 그후 보수도 하고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670년에 다시 세우기도 하면서 그 이름을 《련광정》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였다.

련광정이란 전망경치가 좋은 루정이라는 뜻으로서 《제일루대》, 《만화루》 등으로도 불리웠다. 현재의 련광정은 1670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련광정에는 《천하제일강산》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고 남쪽채 기둥에는 고려시기의 시인 김황원이 대동강기슭의 부벽루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여 지은 《긴 성벽기슭으로는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넓은 벌 동쪽에는 점점이 산이 있네》라는 시구가 씌여있는 글씨판이 걸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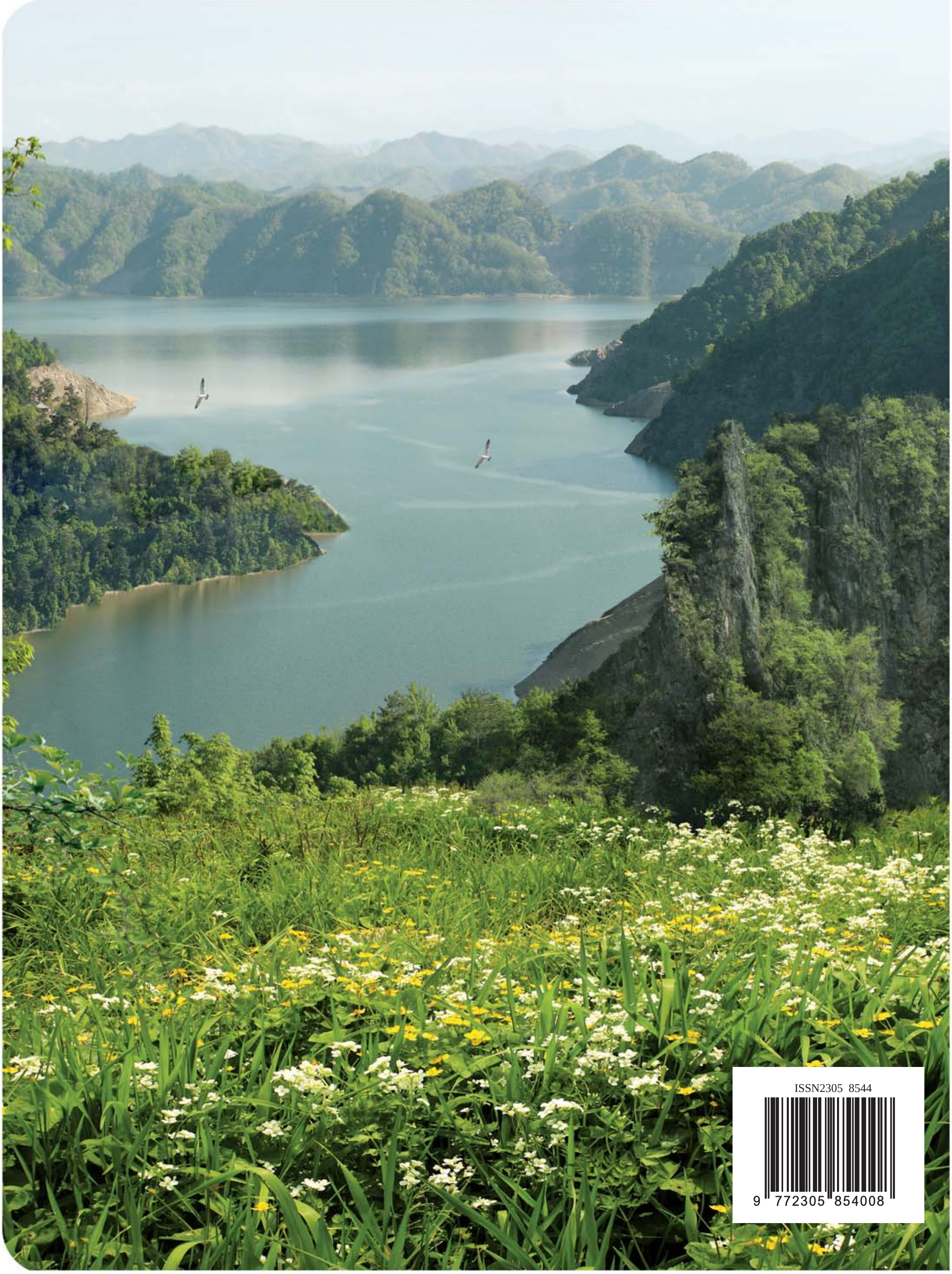
우수한 건축술을 보여주고있는 련광정에는 외래침략자들을 쳐물리친 우리 인민의 애국적투쟁이야기가 깃들어있다.

련광정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폭격에 의하여 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전후에 인차 옛 모습대로 훌륭히 복원되였다.

글 송영

현판 《천하제일강산》

고려시기의 시인 김황원이 쓴 시구



ISSN2305 8544
9 772305 854008

수풍호의 여름